

# 제2차 금융위원회 의사록

---

2023. 2. 1.

금 융 위 원 회

1. 일 시 : 2023년 2월 1일 14:00 ~ 14:52

2. 회의방식 : 대면회의

3. 출석위원

김 주 현 위 원 장

김 소 영 부위원장

권 대 영 위 원

김 용 재 위 원

이 복 현 위 원

유 재 훈 위 원

이 승 현 위 원

김 용 진 위 원

#### 4. 회의경과

(14시 00분 개회)

##### 가. 개회선언

위원장이 성원이 되었음을 확인 후, 개회를 선언함

- 1) 2023년도 제1차 금융위원회 회의록과 2023년도 제1차 임시 및 제2차 금융위원회 안전검토 소위원회 의사록 보고

☐ 2023년도 제1차 금융위원회 회의록과 2023년도 제1차 임시 및 제2차 금융위원회 안전검토 소위원회 의사록을 서면보고한 후 원안대로 접수함

##### 2) 의결안건 심의

☐ 의결안건 제17호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을 상정하여 금융위원회 중소기업과장이 내용을 설명함

※ 저축은행의 영업 양수도에 관한 구체적 심사기준을 정하기 위해 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을 일부 개정하는 내용

○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대로 의결함

\* 만장일치로 원안의결을 의미함 (표결이 있는 경우 별도 표기)

- 의결안건 제18호 『○○저축은행 등 4개 저축은행 대주주에 대한 주식처분명령안』을 상정하여 금융감독원 저축은행감독국장이 내용을 설명함

※ 저축은행 대주주 적격성 유지요건 충족명령을 이행하지 못한 대주주에게 주식처분 명령을 부과하는 내용

-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대로 의결함

- 의결안건 제19호 『메리츠증권(주)에 대한 부문 및 종합검사 결과 조치안』을 상정하여 금융감독원 금융투자검사국장이 내용을 설명함

※ 메리츠증권(주)에 대한 부문 및 종합검사 결과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

- (위원) ‘전문투자자 지정을 위한 설명의무 미이행’에 대해서는 자본시장법의 제정 취지가 일반투자자와 전문투자자를 원래 구분하고 있고 전문투자자는 가급적 일반투자자로 전환하여 자본시장법이 규정하는 투자자 보호 의무 관련 이익을 향유하라는 것임. 반대로 일반투자자를 전문투자자로 전환할 때는 자본시장법이 규정하는 투자자 보호 의무와 관련된 이익을 제공받지 못하게 되기 때문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어서 이러한 것을 취급할 때는 상당한 주의를 기울이라는 것이 법의 취지인 것 같음. 23개의 증권사들을 전수조사한 결과로 볼 때는 이러한 절차를 잘 이행했는데 메리츠증권(주)만 다소 주의가 결여되었던 것 같음. 그래서 이번 제재에 있어서 다소 바뀌는 부분이 있었는데, 이와 관련하여 혹시

메리츠증권(주)에 대해서 이것이 선례가 될 수는 없을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 어떻게 조치할 것인지?

- (보고자) 위원님 말씀처럼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위원회 안전검토소위원회에서 이런 건에 대한 과태료 부과 건이 처음이다 보니 논의를 많이 한 사안임. 결론을 말씀드리면 이것이 시행령상으로는 언제 설명의무를 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 명확하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협회 규정으로 조금 더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대다수의 증권사가 잘 지키고 있었지만 메리츠증권(주)은 약간의 혼선이 있는 상태로 지속되어 온 것이 확인이 되었음. 그래서 이번에 과태료를 전면 면제하지는 않고 감면을 하는 것으로 의결하고 향후 금감원과 협조하여 협회를 통해서 모든 증권사들에게 다시 한 번 설명의무를 언제, 어떻게 이행해야 되는지에 대해 공문처리를 하여 추후에 같은 사안이 반복될 경우에는 원칙대로 강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조치하겠음.
- (위원)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19호 안전과 관련하여, 메리츠증권(주)에 대한 과태료를 다음과 같이 수정의결하겠음. 금융위 안전검토소위원회는 메리츠증권(주)의 전문투자자 지정을 위한 설명의무 미이행과 관련하여 위반으로 지적된 201건 모두 동사에서 한 번의 설명은 이루어진 점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를 감경하는 것으로 수정심의한 바 있음. 증권선물위원회는 메리츠증권(주)의 투자자정보 변경여부 확인 불철저와 관련하여 개정 후 규정에 의하면 확인의무는 없던 규제가 되는 것이고 통지의무는 신설된 것임을 고려하여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것으로 수정심의한 바 있음. 이

에 따라 메리츠증권(주)에 대한 과태료 부과금액을 10억 3,750만 원으로 수정의결 하겠음.

○ 수정 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수정 의결함

□ 의결안건 제20호 『(주)대구은행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을 상정하여 금융감독원 은행검사2국장이 내용을 설명함

※ (주)대구은행 직원의 20% 초과 지분증권 담보대출 보고 의무 위반에 관한 과태료 부과의 면제를 건의하는 내용

○ (위원) 위원님들, 금융위 안전검토소위원회에서 수정심의가 있었는데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이 사안이 예전에 법령해석심의위원회에서 포괄조항이라고 하여 이것으로 과태료 부과해서는 안 된다고 결정했던 그 조항(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규정·명령 또는 지시를 위반한 경우)으로 인해 기관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지 못한 사안인지?

○ (보고자) 그러함.

○ (위원) 그러니까 기관에 대해서는 법령해석심의위원회 결정이 있어 못하게 된 것이고, 개인에 대해서는 제7호 '이 법에 따른 서류의 비치, 제출, 보고를 위반한 것'으로 해서 이것도 포괄조항이라고 하니까 이 과태료 부분에 있어서는 기관

과 개인에 대한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는 사안이 되겠음. 그래서 아까 저희가 규제의 공백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렸던 것이고, 개인들에 대해서는 제제가 이루어졌다고 말씀하신 것인지?

- (보고자) 그러함. 제재심의위원회에서 ‘주의’ 조치되었음.
- (위원) 위원님들,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결안건 제20호 (주)대구은행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과 관련하여 논의해주신 결과와 앞서 보고된 “금융관계법상 과태료 제도개선 추진방향”의 취지를 감안할 때 동 조치안에 대해 포괄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부과하지 않는 한편, 향후에도 해당 포괄규정에 근거하여서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기로 의결하겠음. 아울러 과태료 부과 명확성과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금융위원회 소관 법률상 과태료 부과에 대한 포괄규정을 정비하는 제도 개선을 추진하여 주시기 바람.

- 수정 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수정 의결함

- 의결안건 제21호 『(주)국민은행에 대한 종합검사 결과 조치안』을 상정하여 금융감독원 은행검사1국장이 내용을 설명함

※ (주)국민은행에 대하여 허위자료 제출에 의한 검사 방해에 대한 과태료 부과를 건의하는 내용

-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대로 의결함

### 3) 보고안건 심의

- 보고안건 제5호 『금융관계법상 과태료 제도개선 추진방향 보고』를 상정하여 금융위원회 은행과장이 내용을 설명함

※ 금융관계법상 과태료 제도의 개선방향을 보고하는 내용

- 원안대로 접수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대로 접수함

- 보고안건 제6호 『삼성생명보험(주)의 조치명령 이행결과 보고』를 상정하여 금융감독원 생명보험검사국장이 내용을 설명함

※ 조치명령 부과에 따라 삼성생명보험(주)이 이행한 용역계약 관련 지체상금 처리 등 업무절차 개선내용을 보고하는 내용

- 원안대로 접수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대로 접수함

### 나. 폐회선언

위원장이 2023년도 금융위원회 제2차 회의의 폐회를 선언함.

(14시 52분 폐회)